

LNG 선박 연료 수입부과금 100% 환급 제도에 대한 재고



요약

해운업계에서는 강화되는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 발주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LNG 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해 LNG 추진선이 국내에서 주유한 경우, LNG에 부과된 금액 전액을 2021년부터 환급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의 문제점과 존속 필요성에 대해 재고하고자 한다. LNG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메탄으로 구성된 화석연료로서 해운의 궁극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대체연료로서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LNG 벙커링 환급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서 지출되는데, 이 기금은 2023년에 약 3조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LNG 환급제도가 지금과 같이 지속될 경우, 국내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는 2024년 14억 원, 2025년 169억 원, 2030년에는 339억 원으로 추정된다.

해외 항만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LNG 벙커링 시장 점유율 전망을 고려 시, 우리나라의 LNG 벙커링 산업이 국제 LNG 벙커링 산업을 선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LNG 벙커링 환급 제도와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국제해사기구의 LNG에 대한 입장과의 불일치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끝으로, LNG 벙커링 부과금에 대한 현행 환급금 제도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여 우리 정부가 표명한 국제해운 부문 2050 넷제로 달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가. 서론

- 현재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이하 'IMO')와 유럽연합(이하 'EU') 등이 도입하고 있는 온실가스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 중 하나인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추진 선박 발주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2023년 7월 IMO는 2018년 대비 강화된 감축 전략 발표와 함께 LNG 등 화석연료로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 넷제로 달성이 궁극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¹

- LNG 추진 선박 연료는 전생애주기(Well-to-Wake) 기준으로 평가 시 기존 연료인 중유의 80% 정도의 배출량¹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체연료가 아님²
- 그러나 우리 정부는 LNG 추진선의 연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LNG 선박 연료 급유(이하 '빙커링')에 대한 부과금의 환급금을 2021년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 중
- 대한민국은 세계 주요 항만 대비 LNG 빙커링 시장에서 큰 비중이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정부 예산으로 국내 LNG 빙커링에 환급금 지급을 하는 것이 대하여 예산 사용의 타당성과 적합성이 의문시됨

나. LNG 빙커링 환급금 도입 배경

- 2021년 11월 산자부는 LNG 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여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24,242원/톤 전액 환급을 발표
 - ※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하여 환급
-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국내 업계의 LNG 빙커링 사업 경제성 확보를 통해: (1) 우리나라의 친환경 선박에 이은 글로벌 LNG 빙커링 산업에서의 선도적 역할 기대, (2)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감축을 통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있음³

[표 1] 선박용 LNG 제세공과금 부과현황

구분	세율	회계	수출품에 대한 환급여부	비고
관세	도입국에 따라 0~3%	국세	환급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개별소비세	42원/kg	국세	환급	
수입부과금	24,242원/톤	에특회계	21년 1월 1일 물량부터 환급	
안전관리부담금	3.9원/Nm (약 4.9원/kg)	에특회계	미환급	특정 정책목적의 경우 면제

<출처: 산자부>

1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에서 천연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인 액화 메탄으로 구성됨. IMO에 따르면 LNG 수명 전주기에서 메탄 슬립이라고 부르는 메탄이 대기로 일부 누출됨. 메탄은 지구 온난화의 25%를 책임지는 만큼 메탄 배출의 감축은 기후 위기 완화에 매우 중요

<관련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0.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석유 및 LNG 환급금 제도 배경>

석유수입부과금 및 환급금 제도

- 석유수입부과금은 원유·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게 징수하는 부과금으로 원유와 석유제품(1리터당 16원), 발전용 천연가스(1톤당 3,800원), 비발전용 천연가스(1톤당 24,242원) 등에 부과함⁴
- 부과금이 징수된 석유 중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특정용도로 공급·사용한 경우, 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함⁵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이 현재 부과금의 환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⁶

[그림 1] 석유수입 부과금 및 환급금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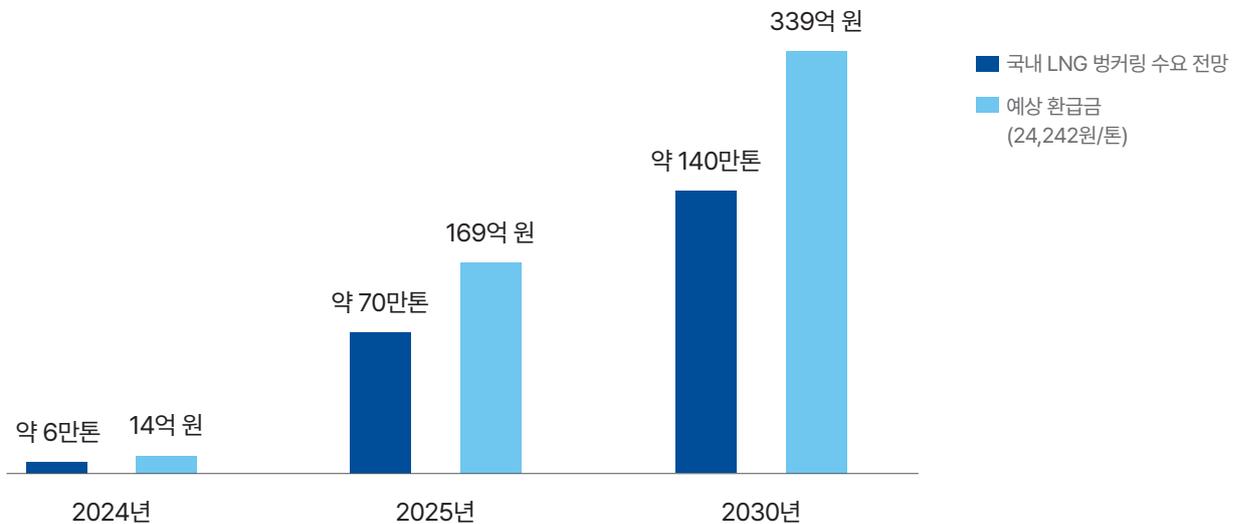


<출처: 석유관리원>

다.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

-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는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음. 이 보고서에서는 관련 뉴스 등으로 LNG 벙커링 국내외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환급금을 추정하였음
 - *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는 해당 정보는 비공개이지만 석유관리원과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 총 9억 원 환급⁷
- 여러 조사기관의 자료를 종합 시, 전 세계 벙커링용 천연가스 소비는 2021년 171만 톤에서 2025년 778만 톤으로 연평균 46.1% 증가(연평균 성장율),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적인 LNG벙커링 수요가 약 3,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⁸
- 우리나라의 LNG벙커링 수요는 2024년 6만톤, 2025년 70만톤, 2030년에는 약 14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⁹
- 산자부의 비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24,242원/톤이 2030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환급된다는 전제 시, 2024년 14억 원, 2025년에는 169억 원, 2030년에는 339억 원을 환급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

[그림 2] 예상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



라. 현행 LNG bunker링 환급금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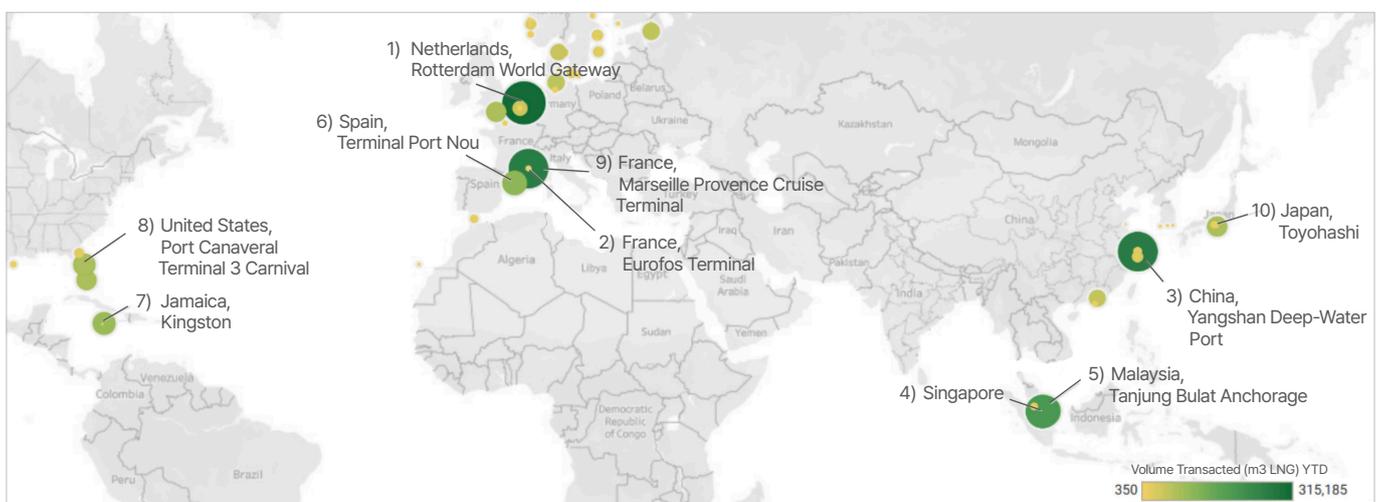
1) 현재 적자인 에트회계로 지급하는 LNG bunker링 환급금

- LNG bunker링 환급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트회계')에서 지출되며, 2023년 에트회계는 약 3조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¹⁰
 - * 에트회계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등을 모아 에너지·자원개발 위해 1995년에 도입된 정부 기금²이며, 정부 예산 기금 60여개 가운데 세번째 규모¹¹
- 산자부의 국고보조사업 설명자료에도 LNG bunker링 관련 세입과 세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세계 LNG bunker링 시장에서 약한 대한민국 경쟁력 및 경제적 효과

- 추진 선박을 운영중인 고객에게 선박용 액화천연가스를 판매하는 한국엘엔지부커링(주)(한국가스공사의 100% 자회사)는 2021년 전세계 LNG bunker링 전세계 시장의 점유율 0.4%에서 2030년에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 그러나 선박 bunker링 기준 압도적인 1위 싱가포르항과 2위인 로테르담항 등 외국 항만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국내 항의 환적항 특성을 고려 시, 2030년에도 LNG bunker링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
- 게다가 외부 연구결과인 『LNG bunker링 및 관련 인프라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해양금융예의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LNG bunker링 및 관련 인프라는 전체 산업 평균 보다 경제 파급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¹²

[그림 3] 세계 상위 10개 LNG bunker링 항만



<출처: Kpler LNG Bunkering Report >

2 에트회계는 태양광 주력 보급이나 폐광지역 지원, 에너지 국제회의 개최, 가스 안전기기 보급 사업, 가스 시설 지진 대응 비용, 해외유전 개발과 LPG 가스 품질검사,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예산에 사용됨

[표 2] 35개 산업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영향력, 감응도계수(2019)

부문	생산유발	부가가치	취업유발	고용유발	영향력	감응도
농림수산물	1.89	0.851	26.091	4.377	1.025	0.963
광산품	1.937	0.857	9.187	7.386	1.05	0.617
음식료품	2.201	0.758	13.079	5.957	1.193	1.189
섬유,가죽	1.866	0.544	8.487	6.295	1.012	0.876
목재 등	2.049	0.732	9.020	6.741	1.111	1.013
석탄,석유	1.262	0.353	1.289	996	0.684	1.153
화학제품	1.895	0.601	5.375	4.273	1.027	1.857
비금속광물	2.134	0.743	8.199	6.252	1.157	0.778
1차금속	1.883	0.496	4.471	3.577	1.021	1.4
금속가공	2.095	0.745	7.897	6.356	1.136	1.171
컴퓨터 등	1.554	0.624	3.571	2.933	0.843	1.038
전기장비	2.065	0.667	6.537	5.338	1.12	1,022
기계,장비	2.069	0.699	7.452	6.073	1.122	0.887
운송장비	2.44	0.691	7.326	6.084	1.323	1.07
기타제조업	2.128	0.711	11.905	8.477	1.154	0.641
제조업가공 등	1.831	0.857	12.375	10.652	0.993	1.156
전력 등	1.651	0.535	2.835	2.365	0.895	1.09
수도 등	1.767	0.873	10.299	8.340	0.958	0.704
건설	2.009	0.823	11.104	8.726	1.089	0.634
도소매, 상품중개	1.756	0.877	16.487	10.375	0.952	1.678
운송	1.772	0.656	13.075	8.116	0.961	1.498
음식점,숙박	2.16	0.824	19.011	10.214	1.171	1.141
정보통신 방송	1.625	0.86	8.516	7.023	0.881	1.094
금융,보험	1.643	0.924	7.224	6.240	0.891	1.305
부동산서비스	1.441	0.96	4.985	3.563	0.781	1.001
전문 등	1.814	0.864	11.071	9.128	0.984	1.518
사업지원	1.523	0.916	15.251	13.474	0.826	1.189
공공행정 등	1,365	0.922	9.279	8.689	0.74	0.914
교육서비스	1.501	0.926	14.952	11.400	0.814	0.562
보건및사회복지	1.747	0.837	14.790	12.938	0.947	0.603
예술 등	1,769	0.884	14.471	9.227	0.959	0.64
기타서비스	2.001	0.833	24.64	14.966	1.085	0.672
기타	2.56	0.855	9.914	8.159	1.388	0.505
LNG병커링인프라	2.051	0.717	8.487	6.901	1.112	0.542
LNG병커링운영	1.097	0.231	1.221	1.086	0.595	0.787
LNG병커링(평균)	1.574	0.474	4.854	3.994	0.865	0.665
선산업(평균)	1.844	0.75	10.282	7.22	1	1
계	64.551	26.246	359.873	252.697	35	35

<출처: LNG 병커링 및 관련 인프라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해양금융에의 시사점>

3) IMO와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역행하는 환급금 제도

- LNG 벙커링은 액체 운반 화물차로 공급하는 방식(Truck-to-Ship), 벙커링 선박에서 LNG를 공급하는 방식 (Ship-to-Ship), 항만에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Port-to-Ship)으로 구분됨.¹³ 벙커링 과정에서 메탄 슬립 발생.¹⁴ IMO는 2023년 7월 2050년까지 국제해운 부문에서 넷제로를 달성할 것을 발표함과 동시에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명시¹⁵
- 환경부가 2021년 발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최종 지향점이 아니므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구성한다”고 함. 그리고 ‘전환부문’에 포함된 경제활동에는 친환경 선박 건조와 친환경 선박 운송이 포함¹⁶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이용은 203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¹⁷ 그러므로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가 2030년 이후에도 유지된다면 IMO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방향과 불일치

[표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가이드라인 중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분야(항)	경제활동(호)	설명
제2절 전환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활동 ※ 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나. 발전 에너지	(1)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LNG; Liquefied Natural Gas) 또는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부생가스,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한 가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개발(무탄소 혼소, CCS 등) 수준 등을 감안하여 '30~35년까지 인정
	(2)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활동 ※ '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다. 수송	(1)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의 건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활동 ※ 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2) 친환경 선박 운송	여객 또는 화물의 수송 운송을 위해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 또는 관련 선박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 운영하는 활동 ※ 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출처: 환경부>

마. 정책 제언

- 1) 투명한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 공개 필요
- 2)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 존속 여부 검토하여 2030년 이전에 폐지 추진

1) 투명한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 공개 필요

산자부와 석유관리원은 현재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를 비공개.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벙커링 제도의 폐지 시점을 판단할 수 있음

2)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 존속 여부 검토하여 2030년 이전에 폐지 추진

에트회계가 적자인 상황과 대한민국이 2030년에도 세계 LNG 벙커링 시장에서 유의미한 경쟁력이 차지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 앞으로 계속 증가할 LNG 부과금을 환급하는 것은 당위성이 떨어짐.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 존속 여부 검토하여 2030년 이전에 폐지

바. 결론

-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석연료인 LNG 벙커링 부과금에 대한 환급금 제도의 존속은 대한민국이 국제해운 부문에서 2050 넷제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LNG 벙커링 수요가 늘어날수록 현재 적자인 에트회계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시에 실제 지원 증액이 필요한 영역(그린 선박 연료 등)에 적절한 지원이 어려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해운 탈탄소 방향과의 불일치를 고려, 현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에 대하여 2030년 이전까지 존속 여부와 그 정당성 재고 필요

◦ 참고문헌

- 1 IMO, 2023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https://www.imo.org/en/OurWork/Environment/Pages/2023-IMO-Strategy-on-Reduction-of-GHGEmissions-from-Ships.aspx> (retrieved on May 5, 2024)
- 2 Clarksons Research, Fuelling Transition: Tracking the Economic Impact of Emission Reductions & Fuel Changes, April 8, 2024.
-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bunker링 수입부과금환급, 2021년 11월 1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121#pressRelease> (접속일자:2024년 5월 5일)
- 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석유수입·판매부과금제도,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875&sitePage=> (접속일자: 2024년 5월 5일)
- 5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수입부과금 확인사무,
<https://www.kpetro.or.kr/lay1/S1T169C170/contents.do> (접속일자: 2024년 5월 5일)
- 6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수입부과금 확인사무,
<https://www.kpetro.or.kr/lay1/S1T169C170/contents.do> (접속일자: 2024년 5월 5일)
- 7 관련 정보는 기후솔루션이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한 내용임.
- 8 박병인, 전세계 친환경 연료 보급확대 나서, 투데이에너지, 2023년 1월 2일,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56234#:~:text=%EC%A0%84%EC%84%B8%EA%B3%84%20%EC%97%B0%EA%B0%84%20LNG%20%EB%B2%99%EC%BB%A4%EB%A7%81%EC%9A%A9,%EB%8A%94%20%EB%8D%94%20%EB%8A%98%EC%96%B4%EB%82%A0%20%EC%A0%84%EB%A7%9D%EC%9D%B4%EB%8B%A4> (접속일자: 2024년 5월 5일)
- 9 최인순, 지지부진한 국내 LNG bunker링... 경쟁력있는 요금정책 필요, 2024년 5월 21일,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20> (접속일자: 2024년 5월 23일)
- 10 박세환, 일그러진 산업부 '에특회계'... 올해 적자 3조로 불어난다, 국민일보, 2023년 5월 15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01889> (접속일자: 2024년 5월 5일)
- 11 박세환, 일그러진 산업부 '에특회계'... 올해 적자 3조로 불어난다, 국민일보, 2023년 5월 15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01889> (접속일자: 2024년 5월 5일)

- 12 최문성, LNG 벙커링 및 관련 인프라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해양금융예의 시사점 -,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4권 제4호, 2023년 8월, 57-71 페이지
<https://www.bing.com/ck/a?!&p=8e4337ecd9727c38JmltdHM9MTcxNDAwMzlwMCZpZ3VpZD0yMjhkYjY2Zi03N2Y4LTYyZjYtMTRiYy1hNzhhNzZlZDYzYzkmaW5zaWQ9NTE3OQ&ptn=3&ver=2&hsh=3&fclid=228db66f-77f8-62f6-14eca78a76ed63c9&psq=%22LNG+%eb%b2%99%ec%bb%a4%eb%a7%81+%eb%b0%8f+%ea%b4%80%eb%a0%a8+%ec%9d%b8%ed%94%84%eb%9d%bc+%ec%82%b0%ec%97%85%ec%9d%98+%ea%b2%bd%ec%a0%9c%ec%a0%81%22&u=a1aHR0cHM6Ly93d3cuZGJwaWEuY28ua3lvam91cm5hbC9hcnRyY2xIRGV0YWlSP25vZGVJZD1OT0RFMTE3MzQ0NTQ&ntb=1>
- 13 연선옥, 바다 위 '에너지 전환' 바람... 'LNG벙커링' 뛰어드는 기업들, 조선일보, 2020년 7월 17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1649.html (접속일자: 2024년 5월 5일)
- 14 Corbett, Thomson, Winebrake, Methane Emissions from Natural Gas Bunkering Operations in the Marine Sector: A Total Fuel Cycle Approach, November 21, 2015,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Ghea0496FAxUsVPUHHdnAAGQQFnoECBkQAQ&url=https%3A%2F%2Fwww.maritime.dot.gov%2Fsites%2Fmarad.dot.gov%2Ffiles%2Fdocs%2Finnovation%2Fmeta%2F9596%2Fmethane-emissions-Ingbunkering-20151124-final.pdf&usq=AOvVaw1V0LLAV552C6s-B9SqBQBn&opi=89978449> (retrieved on May 5, 2024)
- 15 (원문)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be crucial, as the targets agreed in the 2023 IMO GHG Strategy will not be met using fossil fuels.” IMO, 2023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https://www.imo.org/en/OurWork/Environment/Pages/2023-IMO-Strategyon-Reduction-of-GHG-Emissions-from-Ships.aspx> (retrieved on May 5, 2024)
- 16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 2022년12월30일,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jsessionid=6kx0h2E92-uX+EsloXDmi43a.mehom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63&orgCd=&condition.orderSeqId=7854&condition.rnSeq=43&condition.deleteYn=N&seq=7853 (접속일자: 2024년 5월 5일)
- 17 법무법인 세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2022년 1월 12일,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685> (접속일자: 2024년 5월 5일)



SFO°C

Solutions for Our Climate

발간일	2024년 5월
저자	염정훈 책임 (john.yum@forourclimate.org)
도움 주신 분	노진선 기후솔루션 김근하 기후솔루션 한유민 기후솔루션
디자인	네이처리듬

기후솔루션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및 올바른 에너지 전환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리서치, 법률, 대외 협력,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폭 넓은 방법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 솔루션을 발굴하고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나갑니다.

* 참고 본 보고서는 해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작성된 자료로서 정보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비영리법인으로서 특정 기업체, 국가, 공공기관, 정당 및 이익단체, 개인 등을 대변하지 않으며, 투자 자문 또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체나 산업 분야를 홍보하거나, 이에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며, 본 보고서의 어떠한 내용도 투자 유도, 기업 홍보, 경제적 활동 등 사적 이익 추구에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발간 시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검증 과정을 거쳤으나 정보의 정확성, 완결성, 적시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 보고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